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소재디자인공학	학 번	201**874	성 명	이경연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하일브론응용과 학대학	파견학기	1
소요경비	약 1200만원				
주거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따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가서 직접 보고 고르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 고르는 동안 지낼 곳 또한 확보해야하고 짐도 많을뿐더러 학교 측에도 최대한 빨리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주소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출국하기 전에 확실하게 계약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같은 유럽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집을 구하기 위해 보냈던 메일에 답장을 받지 못하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곳 임대업자들도 영어를 잘 못할뿐더러, 독일의 주거공간은 대부분 건식이라 생활패턴이 우리와는 많이 안 맞다보니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라고 추측합니다. 기숙사 발표 후 떨어졌을 경우에 집을 구하려고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 전부터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기수 중에서는 제가 운이 좋게 보냈던 메일들 중 하나가 얻어걸려서 유일하게 따로 주거공간을 구해서 갔습니다. 저는 학교(손하임 캠퍼스)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600유로에 큰 방을 썼는데 옆의 작은 방에는 세입자가 없어서 한 플랫을 다 사용했던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룸메이트	저와 같은 기수랑 함께 살아서 한 달에 300유로씩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층에 다른 독일인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의 볼 일이 잘 없었습니다.				
기숙사 내 한국인	저는 기숙사에 살지 않았지만, 경북대학교에서 2명, 울산대학교에서 1명 정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대학 정보	하일브론 대학교는 Sontheim 캠퍼스와 Europa-Platz 캠퍼스 두 군데로 나뉘어 집니다. 공학 과목이나 특정 몇 과목은 Europa-Platz 캠퍼스에서 듣고, 보통 경영학부의 과목은 Sontheim 캠퍼스에서 듣게 됩니다. 공학 과목을 들을 수도 있지만, 공학 과목은 영어로 개설된 것이 별로 없고,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A101 International Office Staff : Christiane Staab, Hannelore Lang 오전 11시 30분까지만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 및 여가활동	겨울이라 딱히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까도 싶었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 거리가 꽤 있었고 3개월 이상부터 등록할 수 있다가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클럽파티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지에서는 따로 없었고, 출국하기 전에 집을 구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다. 그런데 딱히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직접 구한다고 생각하고, 큰 기대는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사실 한국에서의 전공 수업을 듣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보통 교환학생들이 BU(경영학부)로 소속됩니다. 물론, 전자공학부나 기계공학부는 전공학부로 소속되려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어로 개설된 전공수업이 많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시험도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 스케줄	수업은 한국에서처럼 매주 특정 요일마다 2~3시간씩 듣는 수업도 있고, 'Intensive Course'라고 해서 정해진 특정 날짜나 특정 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며칠 만에 끝내버리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만 출석하고, 보고서 하나만 내고 끝나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학생할인 관련	학생할인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ISIC카드 활용	ISIC카드는 박물관 같은 곳에서 종종 할인받는 데에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공부	영어공부는 생각보다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가 아니다 보니,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닌 이상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면 영어를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독일인들 중에서도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양과목으로 영어수업을 하나 수강했었습니다. 꽤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들도 거의 비영어권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영어로 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한결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여행	저는 위에서 언급한 Intensive Course를 4개정도 들었습니다. 단기간에 한꺼번에 수업을 듣고 나머지 시간에 여행을 다녀서 총 12개국 정도 여행한 것 같습니다.
교통	학교에서 학기 초에 Semester Ticket과 100유로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줍니다. Semester Ticket은 하일브론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티켓으로 하일브론 내의 버스, S-bahn, U-bahn은 무료로 다닐 수 있고, 근교까지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날씨	저는 겨울학기라서 해가 떠있는 때가 잘 없었습니다. 건조하기도 많이 건조해서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인턴	1학기(6개월) 동안 해외인턴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신	겨울학기에 간다면 전기장판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보완점	거주문제를 학교 측에서 조금 더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